



목포대, 전남도와 인도네시아 교류협력 교두보 마련

국립목포대학교 최일 총장과 전라남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5월 28일 롯데호텔서울 별墅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일행과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 겸 초청 만찬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목포대 최일 총장과 송하철 산학협력단장(전남대불산학융합원장) 일행과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집권여당 PDI-P당 대표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로호민 다유리 해양수산위원장 등 현직 국회의원, 주요 기업가들과 정상급 인도네시아 대표 그룹 회장이 방문했고, 전라남도에서는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임재영 경제과학국, 고창희 대법정책지원의뢰장 및 박용덕 대한조선사상 등 총 30여명의 양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와 만찬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2시간 30여 분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전라남도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에너지ICT, 친환경농수산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많은 협의가 있었다.

최일 총장은 환영사에서 "전라남도 주력산업 분야의 교육과 기술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목포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내에 프랜차이즈 대학을 설립하여 인도네시아의 조선해양, 에너지ICT, 바이오산업의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섭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은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는 인도네시아와 자연 환경은 물론 산업 환경이 비슷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조선해양, 농수산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김대중 대통령과의 친분이 돈독했음을 강조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교역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라남도는 인도네시아와 산업 분야가 비슷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일 목포대 총장과 김갑섭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의 전라남도 방문 초청을 받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라남도도 목포대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석범 기자 hsb@

엄마 선생님과 '숲 생태체험'에 나섰다

인천산곡남초, 학부모 숲해설사 인기

인천산곡남초등학교(교장 김현숙)는 2016년에 이어 학부모 숲 해설사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숲속에서 애벌레 찾기를 하고 곤충에 대한 퀴즈를 하고 난 다음 잡자리 만들기를 했다. 학교 숲에 있는 나무 이름을 16칸의 빙고 판에 쓰고 난 뒤 빙고 게임을 하고, 숲에서 찾은 나무 중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시 짓기도 했다.

갈참나무 등 다섯 가지의 나뭇잎을 공부한 다음 눈을 가리고 나뭇잎 이름 맞추기 놀이를 했다. 지난해 전문강사로부터 20시간의 생태연수와 스테디활동을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4시간씩(총 108시간)의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가진 학부모 생태교사들은 올해에도 생태교육 전문강사(유증명)로부터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김현숙 교장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등 생태교육을 위해 애썼다는 의견을 하고 있다.

산곡남초 3학년 학생들은 "빙고 놀이를 할 때 재미있었고 꽃 이름도 많이 알았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할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촉감으로만 나뭇잎을 맞힌 것이 재미있었어요. 역시 산곡남초등학교가 최고예요.", "우리 알마가 하는 빙고와 삼켰지 짓기를 할 때 자와나무로 시를 지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애벌레를 찾으면서 진땀과 도토리 불



수 있었고, 자와나무가 탈 때 자작기가 난다는 것을 알아서 좋았다.", "나뭇잎이 예쁘고 내 기억에 담아두고 싶다."고 말했다.

생태교사인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좋아해 줘서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정말 좋아해요. 내년에도 꼭 하려고 합니다.", "직접 수업을 해보니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겠어

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학부모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요."라는 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생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산곡남초 학생들은 학교 숲 교육으로 인해 산곡남초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점점 키우고 있다.

인문섭 기자 as@

인천간재울초,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 호평

지역사회기관 연계 안전교육 운영 효과 UP



인천간재울초등학교(교장 김운현)는 5월 23-24일 이틀간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고유형을 교육 자료와 교보재를 활용해 체험하고, 원인과 대책을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

시에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23일에는 1-4시까지 2학년 2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디케이이손해보험 에듀케어팀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24일에는 1-4교시까지 3학년

1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간재울초는 재난안전교육이 현장의 전문 강사들과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다양한 외부 기관 연계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첫날인 23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발생하는 위급 교통사고 유형과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만의 안전벨트카드를 직접 만드는 등 교통 안전에 대해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4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화기 사용법 및 연기 미로 체험 및 대피, 화재 원인과 예방법과 신고요령 등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디케이이손해보험 연계 안전교육은 실제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이손해보험 이현주 강사가 나서 생생한 현장감을 더했다.

인천간재울초는 지진대피훈련, 소방안전훈련 등 1년 1회 이상의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은 외부 기관 연계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교사들은 응급처치연수와 응급처치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안전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다.

김운현 교장은 "체험형 실습 안전 교육으로 학생들이 이론안전,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문섭 기자 as@

광주 용연학교, 5·18 REDFESTA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

광주광역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교장 김준희) 학생들이 27일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인 '2017 5·18 REDFESTA' (이하 레드페스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온 축제 참가자들과 광주지역 청소년·시민들을 만났다.

레드페스타에 참여한 용연학교 학생들은 5·18 광주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귀와 그림을 직접 그려 머그컵과 티셔츠에 새겨 가져갈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그동안 학교 수업시간에 알지 못했던 광주사태에 출품된 미술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 참여한 강영주(16) 학생은 "햇살이 뜨거워 힘든 하루였지만 우리가 준비했던 체험들이 좋아해서 주셔서 뿌듯했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용연학교 김준희 교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민주·인권·평화·나눔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함께 배웠다"며 "용연학교가 시민들의 마음에 지역 사회의 함께가는 학교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jmi@



순천교육지원청, 방과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브랜드화 선도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지난 5월 20일 지역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화된 방과후학교인 '순천만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라는 순천만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은 순천만의 열성식물(갈대, 천구물), 깃발 저서생물(갯벌에 사는 친구들), 순천만의 조류(새를 이야기), 순천만의 동·식물 관찰(세밀화 그리기)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기층 단위로 운영하는데 순천만의 생태에 대하여 단순한 해설이 아닌 참여자의 토론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이번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은 순천영재교육원과 순천만 현장에서 11월까지 총 20회 2,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인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에 참가하여 교육부장관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과 격찬을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 특성화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년부터는 순천지역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형태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라남도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 체험 관광으로 발전시켜 정·결·기울 키우는 행복 순천교육의 위상을 새롭게 하며 순천민과 순천만지역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현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핵심분할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선조달담당
- 프로젝터 및 영상기기, 융합 설계공사
- 전자실란, 문서새달기

03 불용물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물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맡김에 해결

불용물처리 및 불용물처리 관련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불용물들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와 전자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에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희박하고 폐기물의 수거하는 부하는 무려 100여만 원에 달하며 또한 재활용을 통해 부하는 나뉘는 자원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LASER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